



## 전갈 | 오정희

수능완성 204 쪽

이 작품은 중년의 위기의식과 권태로운 일상으로 인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변화에 대한 욕망과 갈등에 목말라하고 있는 ‘그 여자’가 일상에 마모되어 가는 자기정체성과 결혼의 의미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 작품 다가가기

### 전체 줄거리

#### 산책길에 만난 전갈

초겨울 그 여자는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집 근처의 강가로 산책을 나갔다. 새로운 다리 공사가 미뤄진 강가의 고요한 풍경 속을 죽은 쥐를 물고 그 여자의 곁을 지나쳐 간 개로 인해 그 여자는 상념에 빠진다. 오늘 아침, 일 년 전 해외지사로 떠났던 남편의 귀국연락을 받고 그 여자는 막바지로 몰린 듯한 절박감을 느낀다. 남편을 맞이하려는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서성이던 그 여자는 학교 자모회의 일을 하러 학교에 갔다 와서 아이들과 햇빛을 쬔 산책을 나갔다.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 있던 그 여자는 강 둔덕에서 놀던 아이들이 발견한 전갈을 보고 남편이 떠난 날 밤 남편의 방에서 처음 발견했던 전갈을 떠올렸다. 전갈을 퇴치하기 위해 그 여자는 봉산을 뿌리고 마른 쭉을 태웠던 일이며 어둠속을 서성이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 후 그 여자는 남편의 방에서 전갈을 몇 차례 더 보았고 전갈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여전히 그 여자는 남편의 방문을 열 때면 긴장과 환상과 두려움을 느껴 마른 쭉을 태우며 그것을 주술적 행위로 느꼈다. 산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의 손을 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지나간 시대의 음영, 혹은 이제는 쓰이지 않는 옛 주화의 마모된 양각 무늬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다가 차츰 닳아지듯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 위층 악사 부부의 대화를 엿듣는 그 여자

그 여자의 집 위층에는 중년의 악사 남편과 애젊은 아내가 사는데 그들은 밤마다 싸운다. 그 여자는 위층과 연결된 세탁실 뚝배기에 귀를 대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악사는 술집에서 취객을 상대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한때는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삶을 꿈꿨지만 지금은 중년의 나이에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내의 절규와 원망을 견뎌낸다.

남편이 돌아오기로 한 전날 밤 여전히 악사부부는 싸우고 결국 악사가 집을 나간다. ‘그 여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밖을 내다보며 악사를 찾지만 찾을 수 없다.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에게 수면 부족으로 인해 한결 높고 꺼칠한 얼굴을 보일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청하나 잠이 오지 않는 ‘그 여자’는 어두운 거실에서 전갈처럼 서성이다가 문득 잠이 든다. 잠결에 무언가 기척을 느끼지만 추락하는 것이 감은 눈시울을 누르는 듯해서 깨지 못한다.

새벽에 웅성거림과 곡성에 깨어나 밖으로 나간 ‘그 여자’는 위층 악사가 ‘그 여자’의 집 바로 밑 화단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여자’와 말라죽은 전갈

‘그 여자’는 집으로 들어와 밥을 안친 뒤 청소를 시작한다. 시간이 없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남편이 올 때까지의 시간을 뜻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허락된 한정된 시간을 뜻하는 것인지는 그 여자 자신도 기실 잘 알지 못한다. 남편의 방에 들어가 방 안의 먼지를 털고 빗자루를 넣어 책장 밑을 깊숙이 훑어냈을 때 그 여자는 먼지와 머리칼 따위를 풀솜처럼 뒤집어쓰고 숨어 있는 벌레를 보았다. 빗자루 끝에 팔려 나온, 그것은 옅은 갈색의 이미 오래전에 말라 죽은 전갈이었다.

## 핵심 정리

갈래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격	사실적, 환상적, 묘사적
배경	시간적 : 초겨울
	공간적 : 미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재	전갈의 발견과 위층 악사의 죽음
주제	권태로운 일상에 매몰되어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
발표	『문학사상』1983년 1월

## 등장 인물

- **그 여자** : 두 아들을 가진 40세의 주부로 중년이라는 나이의 위기감과 안정적이다 못해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결혼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이다.
- **남편** : 동갑내기 아내와 같이 단조로운 결혼생활 속에서 느끼는 일상의 권태를 탈피하고자 일년간의 아프리카 지사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인물이다.
- **악사** : 술집에서 취객을 상대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으나 한때는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삶을 꿈꿨던 인물이다. ‘그 여자’와 마찬가지로 중년의 위기와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다.
- **악사의 부인** : 숨막힐 듯한 일상에서 심각한 불안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이 ‘껌질만 남은 벌레’ 같다고 외치며 일상의 틀 속에서 마모되어 가는 자기 존재의 위기감에 대한 절규를 하는 인물이다.
- **아이** : 외국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호기심도 많은 인물이다.

## 서술상 특징

- 외국지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다는 남편의 소식으로 절박감을 느끼는 여자의 서사와 위층 악사 부부의 서사가 **전갈을 매개로 하여** 전개됨.
- 삼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이 **사용되면서 화자와 초점화자의 시각이 혼용**되고 있음. 주로 초점화자인 ‘그 여자’에 의해 사건이 보여지고 있지만 서술자가 아이의 시각까지 개입하는 전지적 시점을 드러냄.
- ‘보였다’ ‘듯했다’ ‘언제부터였던가’와 같은 **내적 독백의 형식**은 서술자와 초점화자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여 소설의 난해성의 한 요소로 작용함.
- 내적독백이나 자유연상에 의한 의식의 흐름의 수법을 취하고 있어서 **초점화자와 서술자의 발화**가 텍스트에 함께 혼용되는 특성을 지님.

## 해제

이 작품은 ‘그 여자’라고 지칭되는 주인공이 중년의 나이가 주는 위기감과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중년부부의 위기와 삶에 대한 욕망을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이다. 작중인물이 지니고 있는 욕망의 성격을 전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구체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 여자는 남편이 떠난 날 그의 방에서 발견된 전갈에 대해 강렬한 끌림으로 동일시하면서도 한편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지루하고 권태롭고 무기력한 일상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에 대한 욕구를 지니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지켜온 삶의 질서나 안정, 견고함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전갈은 남편의 귀국 시기에 즈음하여 말라죽은 채로 발견되는데, 이로써 그녀의 욕망은 그것을 구성하는 결핍을 재생산하는 상태로 자신을 위치 이동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그녀로 하여금 잃어버린 욕망의 대상을 더듬도록 이끄는 위층 악사의 연주 역시 그의 죽음으로 인해 중단되는데, 그의 죽음 혹은 결핍을 통해 그녀의 욕망은 다시 좌절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오정희는 음습하고 폐쇄적인 세계를 그려냈던 초기작의 시기를 지나 「전갈」에서는 작가 자신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평범한 중산층 여성의 정서와 심리 등의 내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남성과의 화해로운 관계를 유지하지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희망없는 기다림과 환상으로 현실을 버텨간다. 또한 결혼이라는 안전한 장치, 공인된 미덕에 기대어 충실한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한결같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일상의 권태에 지치고 존재론적 불안감에 시달리는가 하면, 한계 지어진 생의 조건에 절망하는 이중적 사고와 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사고 속에서 위태로운 일상의 균형은 무너지고 현실에 드러난 균열을 감지하게 되는 주인공의 내면의식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 작가 알아보기

### ▶ 오정희(1947~)

오정희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유년시절의 위태로운 삶에서부터 그런 소녀들이 자라 모성으로서 갖게 되는 삶의 불구성(낙태, 불임, 왜곡된 가족관계)으로 표현되는 세계와의 불화과정을 겪으며, 현재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를 세밀하고도 빈틈없는 언어를 구사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보편적이고 일상적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전쟁 체험으로 인한 삶의 일그러진 모습, 부성의 상실과 생과 죽음의 본원적 고통을 껴안고 사는 인간들의 진실을 향한 노력을 보여 주는가 하면 세계와의 불화로 인해 끝내는 낙태와 불임, 그리고 잉태에 대한 갈망으로 괴로워하는 여성들의 진실된 내면을 시적이면서도 예리한 문체로 드러내고 있다.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완구점 여인」으로 등단했으며, 1979년 「저녁의 게임」으로 이상문학상을, 1982년 「동경(銅鏡)」으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이래 동서문학상, 오영수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등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다. 2003년에는 독일어로 번역 출간된 장편소설 『새』로 독일 리베라투르 상을 수상했는데, 해외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작가이다.

저서로는 소설집 『불의 강』, 『유년의 뜰』, 『바람의 녀』, 『불꽃놀이』와 동화집 『송이야, 문을 열면 아침이란단다』를 비롯해 『내 마음의 무늬』 등 다수의 수필집이 있다.

## 함께 볼 작품

### ▶ 「바람의 뉘», 오정희

- 삶의 권태를 견딜 수 없어 자꾸만 집을 나가는 아내와 그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엇갈리는 감정, 그로 인한 각각의 고통을 바라 보는 작품이다. 간절한 충동으로 집 밖을 떠돌더라도 결국 이상적인 세계를 만날 수는 없다는, 그 영원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굴레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중년 여인의 시점에서 전개되며, 권태로움과 무의미가 생산하는 삶의 근본적 불행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갈」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 ▶ 「어떤 나들이», 박완서

- 남들이 인정하는 팔자 좋은 여자로서의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과 소통할 수 없는 소외된 위치에 있는 중년의 여성이 일탈의 욕구를 술을 마시고 외출하는 것으로서 표출한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 남편이 만들어 놓은 안락한 울타리에서 권태를 느끼며 참다운 여성성을 갈망하는 양상을 보이는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점과 안정적인 삶의 울타리가 여성을 안전한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강요하는 간접적인 억압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전갈」과 공통점이 있다.

## 내용 학습

### ▶ 「전갈」의 사건 전개 양상

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겨울 그 여자는 아이들과 집 근처 강가로 산책을 나감.</li> <li>• 새로 놓일 다리의 공사가 중단된 고요한 강가에서 죽은 쥐를 물고 지나가는 개를 봄.</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가에서 놀던 아이들이 전갈을 발견함.</li> <li>• 강가에서 만난 전갈로 인해 남편의 방에서 처음 발견한 전갈의 기억이 남.</li> </ul>
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갈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전갈을 퇴치하려는 노력을 했던 과거를 떠올림.</li> <li>• 어느새 사라진 전갈로 인해 밤마다 어둠속을 서성이던 상념이 피어남.</li> <li>• 산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의 손을 쥔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을 봄.</li> </ul>
결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층 악사부부의 대화를 엿들음.</li> <li>• 부부싸움 후 악사가 나가자 창밖을 내다보며 잠 못 들고 거실에서 서성임.</li> <li>• 문이 잠겨 창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려던 악사가 추락하여 죽음.</li> <li>• 남편을 맞이하려 청소하다가 말라 죽은 전갈을 발견함.</li> </ul>

### ▶ 「전갈」에 등장하는 소재의 의미

전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갈은 '맹독성'이나 '야행성', '잠행'을 내포하는 공포의 대상이자 주인공의 욕망의 매개체로 동일시하는 존재.</li> <li>• '비밀과 죽음, 어둡고 잔인한 열정과 성적 환상'을 가진 전갈자리의 여성은 가정, 집, 남편, 자식과 같은 단어들로 유지되는 가부장적 일상에서 매몰될 수 밖에 없음.</li> <li>• 그녀에게 허락된 욕망은 전갈과 같은 위협적이며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죽은 전갈의 껍질과 같은 빈 것으로 귀결됨.</li> </ul>
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조롭고 권태로운 일상인 '집'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주인공이 일상을 벗어나려는 욕망을 발현하는 시도의 결과.</li> <li>• 그러나 구심점을 집에 둔 산책과 외출은 귀환하기 위한 외출이 아니라 귀환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구속으로 기능함.</li> </ul>
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집에서 취객을 상대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으나 한때는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삶을 꿈꿨었던 악사는 그 여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li> <li>• 현실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지만 그 내면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악사는 그 여자의 내면과 욕망을 드러내는 매개적 역할을 함.</li> </ul>



## 깊이 이해하기

### 심화 학습

#### ▶ 오정희 소설 속 산책의 의미

오정희 소설의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집을 벗어나 걷고 싶어 한다. 일상의 억압을 견디어내는 대안으로서의 걷기는 ‘산책’으로 구체화되곤 한다. 산책이란 집을 벗어난 짧은 걷기이며 이는 곧 집으로의 귀환을 예정하고 있는 짧은 이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안전과 가정의 안정을 지키는 데 무리가 없는 이탈로 이탈 경로를 정해두고, 마치 지구를 공전하는 행성인 달처럼 그렇게 일정한 인력을 유지한 채 가정 주변을 맴도는 것이다. 오정희 소설에 거듭 나타나는 **외출**이나 **산책**은 어쩔 수 없는 **궤도의 맴돌기**라는 점에서 **일상의 연장선**에 다름 없다. 이러한 걷기를 통해 집, 일상, 안정을 벗어나고자 하는 주인공들의 강렬한 욕구는 더욱더 두드러진다. 산책은 집 밖으로 멀리 나가고 싶어 하는 걷기의 욕망을 잠재우지 못하고, 그럴 수 없는 좌절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려진다. 산책은 주인공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엄마나 아내라는 지위를 잃지 않은 채 경험할 수 있는 욕망실현의 최대치이다.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걷기, 이 걷기의 유형인 산책은 길 위로 온전하게 나서는 여성들의 ‘걷기’와는 구분된다. 허락되었으나 그것은 완전한 의미의 걷기와는 거리가 멀다. 「전갈」의 주인공인 ‘그 여자’의 산책 역시 그러한 한계를 가진 걷기이다. ‘그 여자’는 남편이 돌아온다는 편지를 받은 일주일 전부터 도배와 장판을 새로 준비하며 부산을 떠난다. 하지만 막상 남편이 도착하기 하루 전, 청소를 하고 음식을 장만할 시점이 되자 긴지 않은 외출로 아침나절을 보내 버리고 ‘그 순간 막바지로 몰린 듯한 절박감을 감지’하고 만다. 이 절박감의 정체를 알고 해소하기 위해 여자는 산책을 감행한다.

권태와 무력감에 빠져 있던 동갑내기인 부부는 그것이 결혼에 대한 단순한 권태감이 아니라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생에 대한 근본적 무력감이자 회의감, 상실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던가’를 알기 위해 아프리카 오지의 지사 근무를 자원해 떠난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그런 질문에 떠날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내는 집과 아이들을 지키며 여전히 일상의 궤도를 맴돌 수밖에 없다. 이런 질문과 마주치는 동갑내기임에도 남자는 쉽게 떠날 수 있고, 여자는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의 선택은 산책으로 귀결된다. 떠남과 걷기에는 오래된 성적 차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멀리 떠나는 것, 오지를 탐험함으로써 나에 한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은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관습적으로 오지나 험지는 여자가 홀로 갈 수 없는 공간으로 합의되곤 했다. 남편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알 수도 없는 아프리카라는 낯선 곳을 걷는 동안 아내인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의 봉급을 지급받기 위해 정해진 은행의 창구를 찾아’ 가야만 한다. 남편의 외출이 아프리카에서의 사냥이라면 여자의 외출은 월급을 챙기기 위한, 생계를 위한 도돌이표 돌기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외출이 아니라 삶의 궤도를 맴도는 것에 불과하다. 그녀에게 허락된 걷기와 외출은 고작, ‘때때로 자정 넘어, 경비원의 플래시 불빛을 피하여 떨리며 아파트의 빈 광장을 돌아다니는 것’ 정도이다.

결국 집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은 은닉되거나 사멸될 수밖에 없다. 행복하고 안정된 여성으로서의 삶은 길들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제공된다. 이는 오정희의 소설에서 **집**이 여성적 인물, 주체에게 참을 수 없는 일상의 권태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이고, 주인공의 벗어나려는 시도의 발현이 바로 산책이나 걷기인 것이다.

#### ▶ 「전갈」의 중의성

오정희의 소설 「전갈」에서 중심 소재는 절지동물이자 곤충인 전갈(全蠍)이다. 「전갈」에서 ‘그 여자’는 일 년 전 아프리카 지부로 자원하여 떠났던 남편으로부터, 내일이면 돌아온다는 전갈을 받는다. 이 전갈(傳囑)은 여자의 내면에 잠재워져 있던 다른 전갈(全蠍)을 일깨운다. 작가는 동음이의어로서의 전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권태로운 일상 속 주인공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갖게 한다. 남편으로부터 받게 된 전갈(傳囑)로 인해 알 수 없는 절박감에 빠진 ‘그 여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산책을 갔다가 강가에서 다시 전갈(全蠍)을 발견한다. 그 전갈은 일 년 전 떠나버린 남편의 방에서 처음 발견된 전갈(全蠍)의 공포와 환상의 기억으로 이어진다.

‘그 여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공포를 불안으로 발현하게 하는 존재인 전갈(全蠍)은 다시금 권태로운 일상의 반복이 될 남편의 귀환을 환기한다. 이 전갈(全蠍)은 어느새 사라져 눈에 띄지 않고 ‘그 여자’의 위층에 사는 악사 부부의 대화 속에서 다시금 환기된다. 악사의 아내는 밤늦게 돌아오는 중년의 남편에게 자신이 ‘껍질만 남은 벌레’로 느껴진다고 하며 다룬다. 중년의 악사에게서 자신의 좌절된 삶을 떠올렸던 ‘그 여자’는 집을 나간 악사를 기다리며 어둠 속 전갈의 자취를 찾으려는 듯이 서성인다. 깜박 잠이 들었다가 소란스러움에 깨 ‘그 여자’는 위층의 악사가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집으로 들어온 ‘그 여자’는 쫓기는 마음으로 남편의 방을 청소하는데, 남편이 떠나던 날 밤 방에서 발견된 전갈은 그 사이 껍질만 남긴 채 죽어버렸다. 그것은 그동안 그렇게 빈 껍질만 남아 버린 여자의 욕망이나 자아의 모습과 닮아 있다. 여자의 욕망이나 자아는 이미 실체가 사라지고 집에는 빈껍데기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작가는 죽은 전갈을 통해 형상화한다.



## 주요 장면 Pick!

### Pick! 01

이른 새벽, 그 여자의 잠을 깨운 것은 느닷없는 전화벨 소리였다. 곧 비행기를 타. 아마 오늘 밤은 비행기에서 보내야 할 것 같소. 내일 아침이면 그곳에 닿을 거요. 전화 감도는 아주 좋았지만 거리를 의식한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오게 되어 기뻐요. 애들도 몹시 기다리고 있어요. 식사 든든히 하고 감기 안 걸리도록 덧옷 꺼내놓으세요. 여긴 추워요. 이상 저온이래요. 그 여자도 덩달아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귀국 일자는 일주일 전에 받은 그의 편지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아니 일 년 전, 보다는 대우와 승진을 회사 측으로부터 약속받고 떠날 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지난 일주일, 그 여자는 남편을 맞이 위한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비누를 풀어 마루의 때를 벗기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이 했으며 솜을 틀어 새 이불을 꾸몄다. 그것은 그 여자로서는 거의 필사적인 몸놀림이었으나 일은 아직도 많았다. 오늘은 산계를 구해 토막 쳐 계장을 담고 그곳의 더운 기후가 그의 식성을 변화하게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좋아할 것이 분명한 음식을 몇 가지 장만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청소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긴치 않은 외출**로 아침나절을 보내버렸다.

전화를 끊고 그때 막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달아오르게 한 설렘과 흥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그 여자는 짐짓 무뎌뚱하게 말했다. 아빠가 내일 오신다는구나. 그러나 그 순간 그 여자는 문득 자신의 어조에 깃든 이유를 알 수 없는, **막바지로 몰린 듯한 절박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각각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도 한동안 일을 잡지 못하고 서성이던 그 여자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며칠 전 받아놓고도 무심히 던져버렸던, 큰아이의 학교 자모회에서 온 공문이었다. 고아원과 양로원의 월동 준비를 위한 자선 바자에 내놓을 폐품이용 작품을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그게 언제까지였더라. 그 여자는 서둘러 학교로 달려가며, 자신이 눈먼 말과도 같다고 자조했다.

부대에 가득 든 헌 스타킹을 꼬아 갈개를 만들고 형값 자투리로 조각보를 잇는 작업이 그 여자에게 주어졌다. 못 쓰게 된 잡동사니 물건들과 헌 옷가지의, 악취와 먼지가 가득한 임시 작업실로 꾸민 창고에서 되도록 깊이 숨을 쉬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 여자는 아이의 반 친구 엄마에게 소곤거렸다. 자식이 무섭긴 하군요. 왜요? 내일 남편이 귀국한다는데도 여길 나와 앉았으니 말이에요. 해외에 나가셨던가 부죠? 네. 일 년 만에 돌아오는 거랍니다. 저런, 바쁘실 텐데 나오셨군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일손들이 이렇게 많고 작업 마지막 날이니 일도 거진 끝나가잖아요? 또 빠진 대도 표 나는 것이 아닌걸요. 어쨌든 참 좋으시겠어요. 결혼한 부부가 일 년씩이나 떨어져 있다는 건 불편하고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 어떤 장면?

이 장면은 '그 여자'가 일년 전 해외 지사로 자원하여 나갔던 남편이 귀국한다는 전화를 받는 장면이야. 남편의 귀환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준비하느라 부산한 그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남편의 전화를 받은 '그 여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절박감을 느끼고 일을 잡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학교 자모회의 공문을 떠올리고 학교로 가는 긴치 않은 외출을 해버려.

당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데도 별일 아닌 학교 자선 바자 관련 일을 하는 여자의 모습과 아이의 반 친구 엄마와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야.

#### 선정 이유?

'그 여자'는 권태로운 결혼 생활과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 남편 역시 일상의 권태로움과 중년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지. 남편은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낯선 곳인 아프리카 지사로 자원했어. 하지만 '그 여자'는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산책을 나갈 뿐이야. 일 년 여의 시간을 두고 이탈했던 남편이 돌아 올 때, 여자는 고작 산책 정도의 거리 이상을 가보지 못하지. 그나마도 아이들을 동반하거나 집 안에 재운 뒤 도둑처럼 나가는 것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야. 자정 넘어 새벽 두 세시 쯤 남의 눈을 피해 아파트의 광장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외로움이나 불안함을 달래고 있었지. 그런 가운데 어느덧 일년이 지나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자 다시금 반복될 일상의 권태로움에 절박감을 느끼게 돼. 이렇듯, 구심점을 집에 둔 산책과 외출은 귀환하기 위한 외출이 아니라 귀환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구속일 수밖에 없고 다시 일상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견딜 수 없는 어지럼증으로 긴 의자에 드러누워 어렵פות이 잠이 들었을 때 그 여자는 네 시를 치는 벽시계 소리와 함께 층계를 올라오는 소리, 위층의 벨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고, 이제 그가 돌아오는구나, 꿈결처럼 중얼거렸다. 꿈속에서 그 여자는 무언가가 안타깝게 기어오르려는 몸짓, 비비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고 긴 의자의 팔걸이를 움켜잡았으나 끈이어 커튼이 열린 유리 문 밖의 옅은 새벽빛 속에 펼쳐지며 감게 떨어져 내리는 무엇인가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그 여자의 감은 눈시울을 놀렸다.

새벽에 그 여자는 심상찮은 웅성거림과 가슴을 찌르는 곡성에 밖으로 나왔다. 그 여자의 집 바로 밑의 화단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만 할 뿐 신새벽에 맞게 된 흥하고 상서롭지 못한 일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줄기가 부러진 이년생 단풍나무 곁에 엎드려 있었다. 젖혀진 검은 양복 자락으로 흰 와이셔츠가 보였다. 드러난 한쪽 뺨에 흙이 묻어 있고 머리에서부터 흐른 피가 이마 위에서 가늘게 굳어 있었다. 어떻게 좀 해줘요. 아아, 어쩌면 좋아, 그의 아내가 남편의 구두발을 부여안고 울부짖었다.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곧 앰بول런스가 올 겁니다. 사모님, 그때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경비원이 그 여자의 어깨를 안고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내가 울음 끝에 띄엄띄엄 하는 소리로 보아 그는 비상 사다리로 옥상에 올라가 다시 오중 그의 집 베란다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다. 선생님께서는 술에 취해 계셨던가 부조? 아니에요, 그이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우린 싸웠고 그이는 오밤중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이는 줄곧 머지않아 일터에서 해고되리라는 불안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그런 데에서 일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이때까지 번번이 그런 이유로 밀려났거든요. 나는 잠이 들면 누가 와서 떠메어 가도 몰라요. 그이가 다시 집에 돌아와 벨을 누르다가 기척이 없으니까 베란다로 들어올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의 아내는 어린애처럼 몸부림을 치며 울었다.

곧 앰بول런스가 다급한 소리로 달려와 그와 그의 아내를 실어갔다. 경비원은 화단에 흐른 핏자국에 흙을 덮고 부러진 단풍나무 줄기를 울타리 너머로 멀리 내던졌다.

집으로 들어온 그 여자는 밥을 안친 뒤 청소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직 아침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서둘러야 했다. 시간이 없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남편이 올 때까지의 시간을 뜻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허락된 한정된 시간을 뜻하는 것인지는 그 여자 자신도 기실 잘 알지 못했다.

남편의 방에 들어가 들어낼 수 있는 물건들을 대강 마루로 옮겨 놓고 방 안의 먼지를 털었다. 빗자루를 넣어 책장 밑을 깊숙이 훑어냈을 때 그 여자는 먼지와 머리칼 따위를 풀솜처럼 뒤집어쓰고 숨어 있는 벌레를 보았다.

빗자루 끝에 떨어져 나온, 그것은 옅은 갈색의 이미 오래전에 말라 죽은 전갈이었다.

## ▶ 어떤 장면?

남편이 돌아오는 날 새벽에 위층 악사 부부는 싸우고 악사가 집을 나가버려. '그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며 악사를 찾기도 하고 거실에서 서성대고 있어. 어지럼증에 어렵פות이 잠이 들었을 때 악사가 돌아오는 소리를 꿈결처럼 듣지. 그러나 무언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눈시울이 놀려 잠이 들어버려.

새벽에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곡성에 밖으로 나간 '그 여자'는 악사가 떨어져 죽은 것을 알게 되지. 그렇지만 '그 여자'는 집으로 들어와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전갈이 나타난 후 들어가지도 청소를 하지도 않던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던 '그 여자'가 오래전에 말라 죽은 '전갈'의 사체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야.

## ▶ 선정 이유?

'그 여자'의 집 위층에 사는 악사는 '그 여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 악사는 현재 술집에서 취객을 상대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으나 한때는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삶을 꿈꿨었지. 이와 같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지만 그 내면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악사는 **그 여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사내가 죽던 날, 그 여자는 '먼지와 머리칼 따위를 풀솜처럼 뒤집어쓰고' '이미 오래 전에 죽은' 전갈을 발견해. 여기서 **죽어 버린 전갈은 그 여자의 욕망과 열정의 좌절과 실패를 의미**하지. 또한 전갈을 뒤덮고 있는 **먼지와 머리칼은 그 여자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태로운 현실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어. 전갈이 지닌 독성마저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일상의 파괴력을 실감하게 되지. 이처럼 그 여자의 분신과 같았던 사내와 욕망을 상징하는 전갈의 죽음이 겹쳐지면서 그 비극성과 처절함은 더해져.